

이기는 삶

조직 생활 잘하는 요령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으니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進路)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여 들어가거나 바로 산업현장에 뛰어든게 된다.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

조직생활 경험이 있어야 우리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아무래도 검정고시 출신보다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선호한다.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 후배와 어우러져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생활에 익숙해지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

할 부분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전체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조직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단 조직에 몸담고 나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조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조직원들과 함께 조직이 원하는 일을 원만하게 잘하게 되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승진과 성공이 보상으로 따라온다. 조직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조직 생활을 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요령(要領)을 알아보자.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공통적인 것이 바로 상사에 대한 뒷담화다. 없는 곳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퇴근 후 돌, 셋만 모이면 직장 상사 험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결국 당

사자인 상사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 상사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자기 싫어하는 줄은 게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장 상사의 뛰어난 점을 보고 본받고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면고사로 삼는 게 좋다.

인간성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직장 동료와 동문 그리고 친한 친구 외에는 되도록 인맥을 만들지 마라. 인맥을 쌓는다고 여기기 오지말 팔다 보면 사족(蛇足)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사(個人事)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집안 일이나 친구 일이나 사생활은 되도록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단체 회식이나 모임에 되도록 빠지지 마라.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단체 회식이나 모임에 빠지는 것은 조직

생활을 잘하는 요령이 아니다. 잠깐 참석했다가 일이 있다고 하고 먼저 나오면 된다. 그것이 반복되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알아서 보내준다.

남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직장 동료의 개인적인 일에 오지랖 떨지 말라는 말이다. 남의 집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결례가 된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승진과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마라. 본인이 애를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면 때가 되면 된다.

거래처 담당자와의 개인적인 만남도 하지 마라. 만남이 잦다 보면 사내 기밀에 관한 말도 쉽게 하게 되고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그것이 결국 자신의 울무가 된다. 동료에 대한 함담도 하지 마라.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자고로 인간성 좋고 성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조직 생활을 잘하는 요령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숫자 '3'의 의미는 무엇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the number three?

태초에 에덴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다.
▶ In the beginning, there were God, Adam and Eve in the Garden of Eden.

'3'이라는 숫자는 천국의 상징이다.
▶ The number three is the symbol of Heaven.

하나님은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 God was the Trine Being in the beginning.

그래서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복될때까지는 이 세상에 만들어질 수 없다.
▶ So paradise on earth cannot be set up until the Trinity has been restored.

'3'의 의미는 천국문의 열쇠와 같은 것이었다.
▶ The principle of three was the key to the gates of paradise.

그러나 태초 이래로, 아무도 성경상의 '3'의 의미를 알아낸 자가 없었다. 그것은 마지막때까지 하나님이 감추고 계셨기 때문이다.
▶ But since the beginning, no one found the principle of three in the Bible because God closed it up until the time of end.

'3'의 숨겨진 뜻은 이긴자 구세주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된다.
▶ The hidden principle of three has been revealed by the Victor Christ.

by Alice

꿈에 대하여...〈15〉

영적 상징으로 본 모세 (2편)

지난 글에 이어 모세의 여정을 좀 더 따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모세의 장면들을 '영적 상징'으로 보고 해석해 보려 합니다. 영적 내용은 영적으로 풀어 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덕경 15장 약 동섭천(若冬涉川)을 꿈의 상징으로 보고 해석했던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에 대하여 7 - 꿈의 상징으로 본 도덕경』 참조) 지금부터 모세의 여정에 담긴 영적 상징들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2〉 '모세, 왕족의 신분을 잃고 떠돌이가 되다' (출애굽기 2:11-15)

: 비록 양자이긴 하지만 엄연한 왕족이었던 그는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변방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화려한 왕족의 신분에서 한순간 도망자 유목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전형적인 방하착(放下著), '내려놓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모세를 두르고 있던 세상적 지위, 마귀적 꾀대기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파라오의 공주와 모세, 마르크 샤갈〉

〈장면1〉 '강에 버려진 모세, 이집트 공주가 양자로 삼다' (출애굽기 2:1-10)

: 모세의 출생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용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인이 낳은 사내아이는 강물에 버려 죽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으나 강에서 목욕하던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 올려 양자로 삼습니다. 출생에 관련된 장면부터 꽤 강렬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지다'란 의미입니다.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 자체를 상징하며 왕자는 영적 왕, 의인을 의미합니다. 야기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서 강에서 건져져 공주의 품에 안긴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품고 재탄생시킨 모세가 인간 세계로 다시 보내져 왕자 즉, 영적 구원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담겨 버려진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 원전 성경으로는 테바 'תבה'입니다. 테바 'תבה'는 상자란 뜻의 히브리어인데 성경을 통틀어 이 단어가 쓰인 곳은 모세의 갈대 상자 외에는 노아의 방주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주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테바 'תבה', 상징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테바 'תבה'로 되어도 같거나 그 상징적 의미도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테바 תבה)로 인류 절멸의 위기에서 자기 자신과 84쌍구들을 구원했듯, 모세의 갈대 상자(테바 תבה) 또한 방주이며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구원선, 방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같은 단어, 같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나 신화의 영웅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영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을 겪어 영적 거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방랑의 길을 떠난 길가메시의 여정이 그러했으며,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길인(乞人)이 되어 깨달음을 구했던 석가모니의 길이 그러했고, 도덕경 약동섭천(若冬涉川)의 장에 등장하는 참된 도인(眞人)의 모습 또한 노자 자신의 자화상일 것인데, 따뜻하고 안락한 마을을 등지고 춥고 얼어붙은 겨울 강을 건너는 자로 묘사됩니다.

선지자 요나도 바다에 던져져 고래에게 삼켜진 채, 삼일 밤낮을 그 배속에서 있다가 생환(生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바다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요나의 경우도 하나님께 삼켜진바 되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 재탄생의 과정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여정 또한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장면3〉 '모세, 양치기가 되어 스스로를 나그네라 이름 짓다' (출애굽기 2:15-22)

: 모세는 그대로 미디안 땅에 정착하여 그곳의 여인을 얻어 아들을 낳습니다. 모세는 "내가 낳힌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며 이들의 이름을 "나그네"란 뜻의 게르숨이라 짓습니다. 나그네란 이름은 사실, 모세 자신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모세는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투사하여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 영의 층에서 등장한 이 이름은 자신이 이제 인간적, 세상적 지위를 모두 등지고 하

남의 길을 가는 영적 나그네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상징적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양(羊)은 성경 상에서 회개 이루어진 의인, 구세주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모세가 구세주의 그림자임은 이전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거니와, 양 치는 목자가 된 그의 모습은 정자 그가 영적 구원자의 길을 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은 구세주의 상징'

그런데 왜 양이 구세주의 상징일까요. 양(羊)을 파자(破字)로 보면 양(王)자를 품고 있으니 회개 이루어진 영적 왕, 이기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상의 근거가 중요할 텐데, 요한 계시록의 다음 구절을 보면 어린 양이 왜 구세주의 상징인지가 뚜렷이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노래하기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요한계시록 5:1-9)"

핵심이 되는 짧은 부분만 인용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봉인한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한 일곱 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치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구세주 하나님, 이긴자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당사자라는 것이 뚜렷이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는 봉인된 말씀의 두루마리

를 풀어 하나님이 감추었던 천기를 드러내고 '새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어린 양일 수 없다'

: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 더욱 놀라운 내용을 숨기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라 하더라(요한 계시록 5:4-5)"

앞에 인용한 요한 계시록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계열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어린 양이요 구세주라는 주장을 하는 결정적 근거로 흔히 쓰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Root of David'입니다. 뿌리(Root)가 근원, 조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자손이라면 뿌리가 아니라 다윗의 열매라든가 가지라고 했겠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아니, 사람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이긴자의 말씀대로 누구든 조상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의 아담과 헤와가 나오고, 아담과 헤와는 에덴동산 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으니 하늘나라인 에덴동산에 있던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고로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헤와 즉,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니 계시록은 하나님 자신이 이긴자요, 어린 양이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이긴자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긴자라는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 중에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뒤집는 말씀이 됩니다.

이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흠(왕권)이 함께하는데 실로(Shiloh, 구세주)가 나타날 때 까지(창세기 49:9-10)"라는 야곱의 예언과도 짝을 이룹니다. 이 예언 또한 유다 지파에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실로(Shiloh) 즉, 진짜 구세주가 등장하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의 왕 노릇은 끝나게 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마귀 왕의 아들이다'

: 유다를 사자에 비유한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이니 짐승의 세상 즉, 마귀 세상의 왕은 필자언정 하나님 세계의 왕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은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비밀은 그 파자(破字)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자는 한자로 '獅子'인데 파자(破字)로 보면, 개 같은 짐승을 뜻하는 개사슴(豺) + 스승 사(師) + 아들 자(子)입니다. 짐승은 마귀 신의 상징이며, 스승 사(師)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했으니 아버지자 왕입니다.

따라서 '獅子'는 짐승(豺)의 스승(師)의 아들(子) 즉, 마귀의 아버지의 아들, 다시 말하면 마귀 왕의 아들이란 의미가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 기도했던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수가 불렀던 신은 마귀 아버지, 마귀 왕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자(獅子)는 파자(破字)로 '마귀 왕의

아들이며 사자 다윗의 자손인 예수는 마귀 왕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 계시록과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는 결코 어린 양, 실로(Shiloh, 구세주)일 수 없습니다. '유다의 뿌리'가 어린 양이라는 구절이나, 유다가 사자이며 흠(왕권)이 함께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던진 교묘한 미끼입니다. 마귀 신이 속아, 덫서 물 수밖에 없는 구절을 던져주고 마지막 때에 말씀의 봉인을 떼는 실제 주인공이 그 비밀을 벗겨내어 뒤집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내는 자가 인을 떼는 자이며 어린 양,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독생자다, 내가 이긴자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자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특권(特權)은 그냥 마귀의식입니다.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오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이사야 41:4)"

시작도 끝맺음도 하나님의 신이 직접 합니다. 봉인한 자도 하나님이요, 그 봉인을 떼는 자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긴자도, 어린 양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밀실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긴자가 되었다. 네가 완성자가 되었다."고 선언 하셨을 때,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조희성을 이겨서 하나님이 이긴자가 되셨죠. 내가 완성자가 됐나요. 하나님이 완성되니 하나님이 완성자가 되시었죠."라고 한 이긴자의 응답은 인류사 최고의 선문답이자, 역겹게 걸친 나라의 의식의 무지, 바닥없는 나라의 존재의 어둠을 뚫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활화산처럼 솟구쳐 올라온, 승리한 하나님의 장엄한 자기 선언이자 독백입니다.* -3편에 계속-